

歌辭의 分類的 考察

崔 台 鎬

*專任講師·國文學

目 次

- | | |
|----------------|---------------|
| I. 序 論 | IV. 類型別 分類 考察 |
| II. 諸家의 分類 概觀 | 1. 敎述歌辭 |
| III. 分類上의 諸 問題 | 2. 抒情歌辭 |
| 1. 歌辭의 概念 | 3. 敘事歌辭 |
| 2. 歌辭의 範疇 | V. 結 論 |
| 3. 分類의 方法 | |

I. 序 論

歌辭는 國文學의 가장 代表的 樣式의 하나이다. 특히 歌辭는 그 廣範하고 多樣한 內容과 自由로운 形式, 그리고 오랜 歷史 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韻文과 散文의 兩性格을 同時에 具有하면서 國文學의 諸 要素와 特徵을 가장 綜合的으로 包括하고 있어 時調 小說과 더불어 國文學의 三大장르의 하나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歌辭는 그 作者나 享有階層에 있어서 士大夫를 비롯하여 平民과 婦女 그리고 佛敎徒 天主教徒 東學敎徒 내지 開化啓蒙家에 이르기까지 各 時代 各 階層을 망라하여 있고, 그 表現과 內容에 있어서도 高유의 口碑文學的 要素와 外來의 漢文學的 要素를 흡수 융화하면서 宗教의 敎理나 思想, 主觀的인 情感 또는 客觀的인 事物 등을 多樣하게 담고 있으며 數千篇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자료는 이것이 國문학의 가장 보편적인 樣式으로 존재하여 왔음을 증명하기에 족한 것이다.

이러한 歌辭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매우 활발하게 계속되어 왔으나 아직 이렇다 할 理論的인 定立이 되어 있지 않은 채 多樣한 論議가 계속되고 있는 중이며 歌辭 研究의 기초가 되는 資料의 發掘 整理조차 아직은 當면한 課題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歌辭에 대한 연구가 그간의 노력에 비하여 그 성과와 업적이 두드러지지 못한 것은 歌辭文學 자체가 지니고 있는 廣範하고 多樣한 性格에도 起因하는 것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文學적 特質을 규명하는 작업이 그만큼 어려운 일임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도 하겠다.

그러나 歌辭文學의 本格的이고 綜合的인 연구를 위해서는 資料의 整理와 함께 이를 體系的으로 分類하는 작업이 또한 중요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완전한 분류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歌辭文學의 理論이 定立된 다음에야야 가능한 것이겠지만 바로 그러기 위해서도

分類作業이 先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資料가 完備되기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도 없는 일이다. 현재 歌辭에 대한 分類는 많은 研究者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試圖되어 왔지만 아직도 歌辭文學 全般에 걸친 合理的이고 體系的인 分類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에 本考에서는 그동안 2500여편의 가사 작품을 검토한 결과로써 보다 綜合的이고 合理的인 分類를 試圖해 보고자 한다.

Ⅱ. 諸家の 分類 概觀

歌辭는 그 形式의 自由性과 廣範하고 多樣한 內容으로 하여 이를 整理分類하는 作業이 결코 容易한 일이 아님은 이미 周知하는 바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分類가 계속 試圖되어 실로 區區한 樣相을 보여 주고 있으니 다음에 歌辭에 대한 從來 諸家の 分類를 概觀 檢討하여 보기로 하겠다.

趙潤濟博士는 「歌辭文學論」¹⁾에서 三百餘種의 歌辭에 대하여 그 內容이 實로 各種 各色이라고 前提하면서

華麗한 風景을 說盡한 것, 節候에 따른 自然의 美를 詠嘆한 것, 樓臺 亭閣을 叙記한 것, 隱逸의 氣分을 吐露한 것, 會遊를 즐긴 것, 離別의 哀情을 呼訴한 것, 人生의 無常을 痛嘆한 것, 純道德을 教導한 것, 教訓을 說諭한 것, 地方의 文物制度를 叙述한 것, 旅行路程을 記錄한 것

등, 大략 11個의 項目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歌辭 全般를 망라한 체계적인 分類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며 오히려 初期의인 分類의 例를보여 주었다는 점에 보다 意義가 있을 것이다.

우리어문학회의 「國文學概論」²⁾에서는 作家에 따라 兩班歌辭 平民歌辭 內房歌辭의 세 가지로 나누고 다시 이를 分類하여

兩班歌辭 : 富貴와 功名을 떨치고 江湖에 묻혀서 自然을 벗삼아 漁文의 生活을 하는 것을 描寫한 것. 兩班學者들이 子弟나 鄉人을 爲하여 그네들이 닦고 있는 學問과 儒教倫理를 알기 쉽게 만들어서 朗誦하도록 지은 一連의 歌辭群, 貴양살이가 文學의 素材로 오르고 또는 文學創作의 動機로 된 것. 不遇한 環境이 文學人의 胸襟을 울린 것. 月令歌(달거리)의 形式을 取하여 相思戀情을 읊은 것, 또는 思親의 至情을 읊은 것. 內房歌辭.

平民歌辭 : 雜歌 叙事歌 抒情歌 滑稽歌 佛教歌類

와 같이 나누었으니 비교적 체계적이고 細分된 分類를 시도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用語上의 統一性이 缺如되어 있고 分類의 기준이 구구한 느낌이다. 作家別로 三大分한 것은 주의할만한 試圖로 보이나 역시 作家 全般를 망라하지는 못하였다.

李能雨教授는 「入門을 위한 國文學概論」³⁾에서 가사를 隨筆로 規定하면서 方法上으로 수필적

1) 趙潤濟, 「歌辭文學論」, 韓國詩歌의 研究, 乙酉文化社. 서울 1948. p. 125.

2) 우리어학회, 國文學概論 一成堂書店 서울 1948. pp. 176~190.

3) 李能雨, 入門을 위한 國文學概論 국어국문학회 서울 1954, pp. 116~128.

인 것과 기행으로 나누고 또 두 개의 장르, 즉 중세기적인 것과 말기중세기적인 것으로 나누었으며 다시 「가사文學論」⁴⁾에서는

歌唱物로서의 가사, 吟詠物로서의 가사, 玩讀物로서의 가사

로 三分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音樂的인 歌唱 如否를 기준으로 나눈 점이 특이하다.

張德順教授는 「國文學通論」⁵⁾에서 主觀的 感情을 노래한 詩歌로서의 歌辭와 客觀的 敘事的 事物을 敘述한 隨筆로서의 歌辭로 二大別하였는데 이것은 특히 歌辭가 갖는 장르적인 성격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金起東教授는 「國文學概論」⁶⁾에서 歌辭를 形式에 따라 定型과 變型으로 나누고 이어서 內容에 대하여

叙景文學으로서의 歌辭, 愛情文學으로서의 歌辭, 隱逸文學으로서의 歌辭, 敘事文學으로서의 歌辭, 感傷文學으로서의 歌辭, 敎訓文學으로서의 歌辭, 爾餘의 歌辭

등 7 個項目에 나누어 비교적 整然한 分類를 시도하고 있는데 역시 歌辭 全般을 包括하지는 못한 느낌이다.

李泰極教授는 「歌辭의 內容攷」⁷⁾에서 歌辭의 형식에 따라 正格歌辭와 變格歌辭로 나누고 이어 그 종류를 歌辭 歌詞 雜歌 內房歌辭로 나눈 다음 內容적인 分類에 대하여는

그런데 이 作品들의 內容을 考察하여 보는 데에는 여러 가지 方法이 있겠지마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區分하여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卽 一主體性二. 客體性三. 比較性, 이렇게 三大別하고 다시 이것을 細分하여 그 主體性에서는 한 歌辭 한 歌辭에 담겨진 中心思想을 主體로 하여서 儒家性 道家性 佛敎性 巫俗性 混融性 文學性 等の 六項으로 나누어 보고 그 客體性에서는 주로 그 描寫와 表現을 通한 抒情 敘事 紀行 隨筆 日記 事大 自主 等の 七項으로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셋째로 比較文學性에서는 주로 中國文學과의 關係性을 밝히고 다음 韓末 作品을 통해 본 西歌 및 日本文明의 影響을 살펴보고자 한다.

라고 하여 中心思想, 描寫와 表現, 外國文學과의 關係 등을 고려하여 主體性 客體性 比較性의 세 가지로 크게 나누고 이를 다시 細分하는 方法을 택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三大類型의 하나로 主體性이란 항목을 설정한 것은 주의할 만하며 전체적으로 비교적 分類의 체계성을 유지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李相寶教授는 「韓國歌辭文學의 研究」⁸⁾에서 歌辭의 內容을 살피는 데에는 두 가지 觀點이 있는데 첫째는 主題面에서 性格을 규정짓는 方法이요, 둘째는 宗教面에서 思想을 구분하는 方法이라고 말한 다음 主題面과 宗教面을 종합하여

隱逸歌辭 流配歌辭 紀行歌辭 戰爭歌辭 道德歌辭 頌揚歌辭 相思歌辭 布敎歌辭

와 같이 7 個項目으로 分類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分類한 作品의 양적인 均衡이 이루어지기는

4) 李能雨, 가사文學論 一志社 서울 1977, pp. 14~40.

5) 張德順, 國文學通論 新丘文化社 서울 1960, pp. 178~183.

6) 金起東, 國文學概論 (修正版) 進明文化社 서울 1973, pp. 132~158.

7) 李泰極, 「歌辭의 內容攷」, 陶南趙潤濟博士回甲紀念論文集 新雅社 서울 1964, p. 454.

8) 李相寶, 韓國歌辭文學의 研究 螢雪出版社 1979, p. 15.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朴晟義博士는 「韓國詩文學史」⁹⁾에서 歌辭의 多岐的인 內容을 抒情的인 歌辭와 文筆的인 歌辭로 二大別하고 「韓國歌謠文學論과 史」¹⁰⁾에서는

閑情 相思 景物 教訓 記行

의 5個項으로 분류하여 놓았다. 그러나 역시 이 5가지로써 歌辭 全般을 포괄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崔康賢教授는 「華陽別曲 小攷」¹¹⁾에서 1100篇의 歌辭에 대하여

慨嘆 警戒 景物 警世 啓蒙 教述 教訓 勸農 勸善 紀行 慕賢 夢遊 無常 撫兒 思親 頌祝
戀君 戀情 憂國 友情 隱逸 離別 自傳 戰爭 吊哀 醉樂 親睦 布教 風流 風物 諷刺 閑情
懷鄉 戲弄

등 34個項으로 나누었다. 비교적 많은 자료를 가지고 세분된 분류를 하고 있어 歌辭의 內容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보여 주는 좋은 例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무 繁多한 感이 없지 않다.

徐元燮教授는 「歌辭文學 研究」¹²⁾에서 700篇의 歌辭를 대상으로 이를 主題別로 나누어

江湖閑情 戀主忠君 追慕讚頌 福數頌祝 道德教訓 寄托諷喻 遊覽紀行 風流行樂 風物叙景
戀慕相思 無常嗟嘆 丈夫豪氣 古事懷古 懷抱述義 風俗勸農 宗教布德

등 16個項으로 분류 설명하고 있으며 다양한 내용을 비교적 압축된 유형으로 나누고자 하였다.

한편 權寧徹教授는 「閨房歌辭研究」¹³⁾에서 2038篇의 작품에 대하여

誠女教訓類 身邊嘆息類 思親戀慕類 相思所懷類 風流嘯咏類 家門世德類 祝願頌禱類 祭典哀悼類
勝地讚美類 報恩謝德類 擬人寓話類 路程紀行類 信仰勸善類 月令季節類 勞動叙事類 言語遊戲類
小說內簡類 開化啓蒙類 翻案咏史類 男謠玩賞類 其他

등 21個項으로 분류하였고 그 중 誠女教訓類의 작품 500疋에 대하여 다시 이를

教女歌系 五倫歌系 道德歌系 警誡歌系 閨中行實歌系 貴女歌系 訓民歌系 孝行歌系 寄女歌系
內則歌系 賢婦傳記歌系 明倫歌系 夫婦歌系 婦人歌系 新行歌系 修身歌系 言行歌系 懶婦歌系

등 모두 18個系의 細分된 類型으로 나누었다. 이는 內房歌辭라는 한정된 분야를 대상으로 한 분류이기는 하나 역 歌辭의 內容이 얼마나 多樣하고 浩繁한가를 보여 주는 좋은 例라 할 것이다.

以上 徒來 諸家の 分類로서 代表的인 事例를 몇 가지 概觀 檢討하여 보았는데 적게는 二大別한 것으로부터 많이는 34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류를 하고 있으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분류의 기준이 일정하지 않거나 부분적인 면에 치우친 것, 전체적인 체계와 균형을 잃은 것 등

9) 朴晟義, 「韓國詩文學史」韓國文化史大系 V (言語文學史) 高大民族文化研究所 서울 1967, pp. 872~873.

10) 朴晟義, 韓國歌謠文學論과 史 宣明文化社 서울 1974. p. 390.

11) 崔康賢, 華陽別曲小攷 弘益論叢六號 1975, pp. 7~12.

12) 徐元燮, 歌辭文學研究 螢雪出版社 1978, p. 86.

13) 權寧徹, 「閨房歌辭研究」曉大論文集10輯 (1971) 및 14輯 (1975).

실로 各樣 各色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곧 아직도 보다 합리적인 분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이에 歌辭는 全面的으로 再分類를 試圖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다음에 分類를 위한 前提的인 問題로서 歌辭의 概念과 範疇 그리고 分類의 方法 등에 대하여 再考하여 보도록 하겠다.

Ⅱ. 分類上의 諸 問題

1. 歌辭의 概念

지금까지 歌辭의 概念에 대하여는 많은 論議가 거듭되어 왔지만 역시 너무 莫然하거나 또는 部分的인 特性만을 강조함으로써 歌辭 全體를 包括하는 妥當한 概念 規定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無理와 紛紛한 異說을 낳게 하였다. 歌辭의 概念을 規定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그 文學的인 性格을 爲主로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形式과 內容의 兩面을 함께 고려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歌辭는 形式面에서 3·4 또는 4·4調 連續體의 律文形式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큰 論難의 餘地가 없는 듯하나 문제는 그 內容面에서의 性格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우선 內容的인 면에서 歌辭의 性格을 규정한 종래의 見解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歌辭를 모두 單一한 장르로 파악하려는 見解이다. 趙潤濟博士가 歌辭를 內容的인 면에서 文筆이라고 한 것¹⁴⁾이나, 李能雨教授가 隨筆로 규정한 것,¹⁵⁾ 그리고 趙東一教授가 敎述 장르를 設定하고 歌辭를 敎述장르에 속하는 律文敎述이라고 한 것¹⁶⁾ 등은 모두가 歌辭를 單一한 性格의 것으로 보려는 입장에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歌辭를 兩分하여 보려는 見解이다. 張德順教授가 詩歌로서의 歌辭와 隨筆로서의 歌辭로 兩分한 것¹⁷⁾이라든지, 朴晟義博士가 抒情的인 歌辭와 文筆的인 歌辭로 區分한 것¹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歌辭를 三分하여 보려는 見解이다. 朱鍾演教授는 歌辭를 抒情的인 것과 敘事的인 것으로 二分하였다가¹⁹⁾ 다시 이를 修正하여 歌辭는 抒情的인 것, 敘事的인 것, 敎示的인 것으로 三分되어야 한다는²⁰⁾ 의견을 披瀝한 바 있다.

以上과 같이 歌辭의 內容에 대한 性格規定은 여러 가지 意見이 提示되고 있는데 廣範하고 多樣的인 內容, 복잡한 性格을 가진 그 많은 歌辭들을 모두 一律的으로 處理한다는 것은 역시 無理

14) 趙潤濟, 前揭論文.

15) 李能雨, 前揭書.

16) 趙東一, 「歌辭의 장르 규정」 語文學21輯 韓國語文學會, 1969.

17) 張德順, 前揭書.

18) 朴晟義, 前揭書.

19) 朱鍾演, 「歌辭의 장르考」 서울大敎養課程部論文集(人文社會科學) 三輯, 1971.

20) 朱鍾演, 「歌辭의 장르考(Ⅱ)」 국어국문학 62·63號, 국어국문학회, 1973.

라는 생각이다. 그것은 마치 多岐多様な 內容의 民謡를 一律的으로 規定하기 어려운 점과 같다고 할 것이다. 또한 歌辭를 律文으로 된 敎述文學이라고 한다 해도 모든 歌辭가 다 이에 包括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敎述장르의 概念을 「작품외적 세계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自我의 世界化」 또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을 서술·전달하는 非轉換的 表現」이라고 定義하거나²¹⁾ 敎述장르로서의 歌辭가 지니는 전반적 특징을 「첫째, 있었던 일을, 둘째 擴張的 文體로 一回的으로 平面的으로 敍述해, 셋째 알려 주어서 主張한다」²²⁾고 규정한다 하더라도 모든 歌辭가 다 그러하다거나 또 그러한 특징들이 반드시 歌辭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文學의 樣式을 抒情 敍事 戲曲으로 三分하여 보려는 일반적인 通念에 비하여 第四 장르로서 敎述장르의 理論을 導入하여 이를 歌辭에 適用시킨 점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歌辭文學의 全般的인 理解에 새로운 端緒를 提供하여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歌辭를 抒情的인 것과 隨筆的인 것 등으로 二分하여 보려는 見解는 역시 모든 歌辭를 單一한 性格의 것으로 처리하려는 先入觀에서 벗어나 그 實體에 대한 보다 올바른 理解의 可能性을 提示하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實際로 五倫歌 思美人曲 日東壯遊歌와 같은 作品을 例로 놓고 볼 때에 이들은 내용상으로 同一視할 수 없는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五倫歌는 經典의 思想을 바탕으로 하여 儒敎的 倫理 德目을 敎訓的인 目的으로 敍述한 것이며, 思美人曲은 相思 戀慕의 主觀的 情感을 노래한 것이고, 日東壯遊歌는 旅行의 路程에 따라 見聞한 客觀的 事物을 記述한 것이다. 이들을 모두 隨筆로 처리하기에는 思美人曲과 같은 것은 韻文의 形式 이외에 그 內容에 있어서도 너무나 主觀的이고 抒情的인 性格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隨筆은 어디까지나 形式과 內容의 兩面에서 散文文學임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五倫歌와 日東壯遊歌를 한가지로 隨筆 또는 敍事라고 하기에는 五倫歌는 너무나 그 目的性이 뚜렷하고 思想性 敎訓性이 직접적으로 敍述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역시 각각 獨自的인 類型으로서의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이들을 각각 三分하여 보는 것이 보다 合理이고 無理가 없을 줄로 생각한다.

이에 이들을 각각 敎述 抒情 敍事의 세 가지 類型으로 區分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敎述은 장르상의 用語를 그대로 援用한 것이지만 특히 敎訓的인 目的으로 敍述한 것이라는 의미와, 그 敍述은 이른바 非轉換的 表現을 뜻하는 在來의 述而不作의 개념이 內包된 用語로 사용한 것이다. 歌辭 全般을 通觀하여 볼 때 그 내용은 대개 위의 세 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으리라고 보며 作品에 따라서는 이러한 要素가 서로 混着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그러나 그 程度와 比重에 따라 區分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歌辭는 形式에 있어서 3·4(4·4)調의 連續體로 된 韻文이며 內容에 있어서는 敎述 抒情

21) 趙東一, 「自我와 世界의 小說의 對決에 관한 試論」 韓國小說의 理論 知識産業社 1977, p. 102.

22) 趙東一, 「歌辭의 장르 규정」 語文學21輯 韓國語文學會, 1969.

叙事的 多樣的 性格을 包括하고 있는 文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歌辭의 範疇

가사는 歌詞 또는 歌辭 등으로 通用 表記되어 왔던 것인데 이는 원래 우리 나라 詩歌文學을 通稱하는 用語로 사용되어 왔던 것 같다. 즉 지금 우리가 國文學 樣式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歌辭 外에도 鄉歌 高麗俗謠 景幾體歌 樂章 時調 雜歌 등 모든 詩歌를 가사(歌謠, 歌辭)라고 불러왔던 것이니, 新羅時代의 노래를 말하는데 「燕群臣於臨海殿 酒酣 上鼓琴 左右各進歌詞」²³⁾ 「別曲歌詞隨意製」²⁴⁾와 같이 歌詞라고 하였으며, 龍飛御天歌와 같은 樂章에 대하여도 「歌辭全用 龍飛御天歌」²⁵⁾라고 하여 歌辭라 하였고, 우리 나라 詩歌를 通稱하여 「我國歌詞雜以方言」²⁶⁾이라고 하여 역시 歌詞라고 한 것이라든지, 또 高麗의 俗謠 景幾體歌 時調 雜歌 등을 모아 놓은 詩歌集名에 樂章歌詞, 俗樂歌詞 松江歌辭 孤山歌辭 등의 명칭이 두루 쓰인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하여 일찌기 天台山人은 歌辭를 分類함에 있어 이를 短歌形과 長歌形으로 나누고 短歌形에는 時調 別曲 등을, 長歌形에는 閑情 巫辭 劇詩 등을 포함시켰으니²⁷⁾ 결국 거의 모든 詩歌를 망라하여 놓은 셈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詩歌文學 全般을 通稱하여 가사라고 하는 것은 그 音樂的 側面을 위주로 하여 말한 것이고 文學的 側面에서는 國文學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시작된 이래 여러 先學들에 의하여 이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鄉歌 麗謠(俗謠, 景幾體歌) 樂章 時調 등의 장르가 分立되면서 가사는 그 性格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으니, 즉 3·4調 또는 4·4調의 連續體로 된 韻文이라는 形式에 대한 規定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形式 規定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작품을 按하게 되면 이른바 正統歌辭와 그 외 에 길이에 있어 十數行으로 短形의 歌辭로부터 數千行에 이르는 長形의 歌辭에 이르기까지 많은 차이가 있고, 또 祭文 書簡의 형식으로 된 것, 十二歌詞 雜歌 短歌와 같이 歌唱되어 온 것, 民謠 漢詩 小說 說話 등에서 歌辭化 한 것 등 다른 장르와 넘나드는 것이 많이 있기도 하여 歌辭의 範圍는 確然히 區劃하기 어려울만큼 廣範한 領域에 걸쳐 있다. 그리하여 歌辭라 하면 便宜的으로 이른바 正統歌辭만을 主對象으로 삼아 온 것이 通例처럼 되어 온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歌辭文學의 綜合的인 研究를 위해서는 歌辭의 範疇를 3·4(4·4)調 連續體의 律文形式으로 된, 敎述 抒情 叙事的 內容을 記錄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國문학의 다른 장르에 確定되지 아니한 歌唱 吟詠 玩讀되는 모든 歌辭, 形式上 長形 短形 正格 變格의 歌辭, 또한 歷史的으로도 麗末로부터 開化期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作家層을 두루 망라한 一切의 作品을 일단 歌辭의 範疇에 넣어야 할 것이다. 歌辭가 이치

23) 金富弼, 三國史記 卷十一 新羅本記 第十一 憲康王 七年 春 三月條.

24) 李承休, 帝王韻記 卷下 新羅條.

25) 世宗實錄 卷一百四十五 醉豐亭贈上.

26) 李睟光, 芝峰類說 卷之十四.

27) 天台山人, 朝鮮歌謠概說 朝鮮日報 1933年 十月 二十日 (韓國文化史大系 V p. 885에서 再引).

럼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占하고 있는 그 廣域性은 그만큼 歌辭研究의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歌辭文學이 지니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기도 한 것으로 이를 모두 包 括하여 다루지 않고서는 歌辭文學의 전모를 규명하기는 또한 곤란할 것이다.

3. 分類의 方法

그러면 이와 같이 廣範하고 複雜 多樣한 歌辭는 어떻게 分類 整理되는 것이 좋겠는지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우선 歌辭를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形式에 의한 분류로서 律格이나 結句形式의 如何, 또는 길이의 長短에 따라 正格歌辭 變格歌辭 또는 長形歌辭 短形歌辭 또는 典型歌辭 變型歌辭와 같이 나누어 볼 수가 있다.

또한 作家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 있으니 兩班(士大夫)歌辭 平民歌辭 內房歌辭와 같이 나눌 수가 있을 것이다. 현재 作家別 分類에 있어서는 주로 이와 같이 三分한 분류 명칭이 가장 손 쉽게 通用되고 있으나 좀더 이에 대한 考察이 필요할 것이다. 즉 각자 미상의 작품에 대한 분류 문제라든지 또는 佛敎 天主教 東學 開化啓蒙 등을 敘述한 歌辭의 作者가 儒敎의인 身分 觀念에 따라 나눈 위의 세 가지 部類中 어디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역시 더 細分된 分類가 필요하다.

그리고 文學史的인 時代에 따라 나눌 수도 있으니 麗末 朝鮮前期 朝鮮後期 開化期 등의 時代 區分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다.

한편 音樂的인 歌唱 如否를 기준으로 하여 歌唱歌辭 吟詠歌辭 玩讀歌辭와 같이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作品의 素材나 製作 動機에 따라 流配歌辭 紀行歌辭 戰爭歌辭 使行歌辭 觀遊歌辭 誠女歌辭 風俗歌辭 憂國歌辭 倡義歌辭 風水歌辭 巫俗歌辭 등 特定한 類型에 대한 분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諸 分類 方法은 나름대로의 意義가 물론 있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補助的인 方法이라 할 수 있으며, 歌辭 作品 自體의 類型的 特性을 가장 綜合的으로 드러내는 本格的 分類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內容을 爲主로 하여 나누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歌辭의 分類에 있어서는 바로 內容上的 分類가 重要하고 複雜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시 그 思想 主題 素材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분류는 위의 諸家의 分類에서 보듯이 너무 浩繁하여 오히려 分類의 意義를 상실하거나, 一貫된 體系性이 缺如되기 쉽고 또는 各 類型間의 判別性이 明確하게 드러나지 못하거나 하는 결점이 있다.

그리하여 本考에서는 위의 歌辭의 概念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장르적인 概念과 用語를 援用하여 宗教 思想 등을 敎訓的으로 敘述한 敎述的인 내용이 주가 되는 것을 敎述歌辭, 主觀의 情感을 表現한 抒情的인 내용이 주가 되는 것을 抒情歌辭, 客觀의 事物을 나타낸 敘事的인 내용

그 수가 數百篇에 이르고 있다. 그 중 愛國歌 종류의 작품은 이를 開化詩 혹은 唱歌로 분류하는 이도 있으나³⁵⁾ 이것은 形式上 變格에 속하는 短形의 歌唱歌辭로서 당연히 歌辭의 範疇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憂國警世의인 작품들은 당시 無氣力한 政府에 대한 民族的 鬱憤과 社會에 대한 警鐘, 官僚의 腐敗相, 一般 時事評 등이 주된 내용이 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開化啓蒙思想이라는 時代思潮에 包括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思想을 노래한 開化啓蒙類의 歌辭를 敎述歌辭의 한 類型으로 設定하고자 하는 것이다.

以上에서 敎述歌辭를 佛敎類 儒敎類 天主教類 東學類 開化啓蒙類 등으로 분류하여 보았는데 이 외에도 道仙思想에 관한 것, 陰陽 占卜에 관한 것, 巫俗에 관한 것, 風水地理에 관한 것 등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踏山歌 明堂歌와 같은 몇 편의 所謂 風水歌辭를 除外하면 아직 이들에 대한 자료가 未洽하므로 이를 獨立된 類型으로 設定하는 일은 일단 留保하여 둘 수밖에 없다.

그리고 敎述歌辭는 이를 綜合的으로 살펴 볼 때 대체로 宗教 思想의 內容을 敎訓的으로 叙述함으로써 布敎 敎化的 直接的인 目的性을 第一義로 하고 있는 歌辭라고 할 수 있다. 文學史的으로 볼 때에 敎述歌辭는 그 時代의 支配的인 宗教나 思想의 變遷에 따라 계속적으로 創作 普及되어 歌辭文學의 主宗을 이루어 왔던 것이다. 또한 이 作品들은 內容에 있어 個性的인 面이 缺如되고 서로 엇비슷한 類型性을 지닌 것이 많으며, 同種의 異本이 가장 많기는 儒敎類, 作品名이 多樣하기는 開化啓蒙類의 歌辭이다. 敎述歌辭는 또한 文學的 共感에 있어서보다도 그 思想的 敎化的 面에서 廣範하게 影響을 끼쳐 왔고 또 널리 普及되어 온 것이다.

2. 抒情歌辭

抒情歌辭는 抒情的인 歌辭라는 意味이다. 內容上 비교적 抒情的 性格이 강한 類型의 歌辭를 일컫는 것이다. 여기 말하는 抒情은 抒情장르의 用語와 概念을 빌어온 것이지만 특히 主觀的이고 個人的인 情感을 表現한 것이라는 데에 重點을 둔 分類上의 用語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抒情歌辭는 다음과 같이 風流類 頌祝類 嘆息類 相思類 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가) 風流類

風流類의 歌辭는 世俗的인 規範이나 慾望에서 벗어나 自然景物이나 會遊 등을 素材로 하여 人間의 自然스러운 性情에서 우러나는 主觀的인 感興을 노래한 一群의 歌辭를 일컫는 것이다.

國文學에 있어 하나의 傳統性을 이루고 있는 이 風流的 要素는 또한 詩歌文學 全般을 통하여 普遍的으로 찾아 볼 수 있는 바이나 특히 歌辭에서 이 風流文學的 性格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찍이 賞春曲 俛仰亭歌 등으로부터 시작한 風流類의 歌辭는 自然美를 발견하고 自然을 嘆賞하는 이른바 江湖歌道가 形成되면서 以後 주로 自然을 素材로 한 作品들이 風流類 歌辭의 主流을 이루게 되었으니 自然 속에서 참된 즐거움을 찾아 眞樂의 風流를 노래하였던 것이다. 그

35) 宋敏鎬教授는 開化詩로 (『韓國詩歌文學史下』, 韓國文化史大系 V), 白鐵教授는 唱歌로 (國文學全史), 趙芝薰教授는 開化歌辭로 (韓國文化史序說) 각각 처리하였다.

리하여 江湖歌道の 系列에 속하는 작품들이 대부분 여기에 들 수 있을 것이니, 華麗한 風景이나 節條에 따른 自然의 아름다움을 描寫 咏嘆한 것, 勝地나 樓臺 亭閣 景物을 讚美하여 읊은 것, 富貴와 功名을 덜치고 자연에 묻혀서 자연을 벗삼아 漁父와 같은 生活을 즐기는 江湖閑情을 읊은 것, 安貧樂道の 隱逸生活을 노래한 것들이 있다. 이와 같이 風流類의 歌辭는 自然을 素材로 하여 된 것이 가장 많으나 한편 會遊의 즐거움이나 遊興 行樂을 노래한 것들도 있고 단순히 山水 花鳥를 노래하거나 咏物을 통하여 興趣를 노래한 것도 있다. 그리고 醉樂 弄璋의 興을 읊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편의상 이 部類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風流類의 歌辭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例學할 수 있다.

江村別曲 皆岩歌 觀海錄 九月山香山曲 勸酒歌 樂隱別曲 蘆溪歌 陋巷詞 朗湖新詞 梅湖別曲 倪仰亭歌 牧童問答歌 百祥樓別曲 鳳山曲 四時風景歌 莎堤曲 山水花鳥歌 賞春曲 西湖別曲 星山別曲 蕭湘八景歌 水南放翁歌 首陽山歌 漁父詞 玩月歌 濟陵島仙景歌 遊山歌 隱士歌 逸民歌 立春勝會歌 田園四時歌 滄浪曲 春遊歌 擲袖歌 青鶴洞歌 春風曲 花柳歌 花樹歌 花煎歌 花煎答歌 還山別曲 喜雪歌 号

이러한 風流類의 歌辭는 抒情歌辭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類型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다른 類型에 비하여 文學的으로 秀逸한 作品이 많고 또한 그 作者가 알려진 것이 많다. 때문에 종래 正統歌辭라 하면 흔히 이런 類의 작품을 指稱하여 온 듯하며 그만큼 歌辭文學에서 찾아하는 比重을 크게 두었던 것인데 이를 風流類의 歌辭로 그 類型을 設定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頌祝類

頌祝類의 歌辭는 주로 어떤 人物이나 事實을 主觀的 感興에 의하여 頌揚 祝願한 것이다.

詩歌文學 中에서도 樂章은 頌祝文學으로서의 性格이 가장 두드러진 예이며 時調 같은 데에서도 頌祝歌로서의 作品은 많이 볼 수 있다. 歌辭에서도 이러한 類의 것이 많이 있으니 이들은 分類上 다른 類型과 同一視할 수 없는 또 다른 類型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民族의 集團의이고 愛國의인 情熱을 노래한 愛國詩로서의 愛國歌나, 宗教的 崇敬의念을 나타내는 讚頌歌로서의 讚佛歌 天主讚歌 등이 포함될 수도 있으나 이들은 그 思想의이고 宗教的인 教訓性, 그리고 目的 文學으로서의 性格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모두 敎述歌辭의 類型으로 분류하고 여기서는 그러한 教訓性이나 目的性이 醇化되고 보다 抒情的이고 情感的인 작품들을 頌祝類의 歌辭로 그 類型을 設定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은 대개 頌祝의 對象을 向한 大衆의 集團의인 情緒에 의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이 보통인데, 例컨대 臣民의 一員으로서 王室이나 나라의 무궁한 繁榮 또는 임금의 盛德을 頌祝 讚揚한다든지, 子女로서 父母의 萬壽無疆을 祈願하거나 回甲宴 등의 盛事를 頌慶하는 것, 父母로서 子女의 將來를 祝願하는 것, 百姓의 한 사람으로서 治者의 善政을 讚揚하는 것 등이 있으니 다음에 作品을 例學해 본다.

慶祝歌 貴女歌 悉慶歌 弄璋歌 萬壽歌 邦慶舞蹈詞 聖主中興歌 壽宴歌 頌德歌 雙壁歌 嶺南歌 漢陽歌 獻壽歌 回婚歌 回婚慶祝歌 등

이러한 頌祝類의 歌辭는 內容에 있어 讚揚 頌慶 慶賀 祈願 祝願 등이 主가 되는데 內房歌辭

에서 父母의 回甲宴을 素材로 하여 노래한 獻壽歌와 같은 것은 특히 同類의 異種이 많다. 그리고 漢陽歌와 같은 것은 首都 漢陽의 勝景과 文物制度를 讚美함으로써 나라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祈願한 것으로 역시 同類에 속하는 작품이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頌祝類의 歌辭는 하나의 獨立된 類型으로 設定될 수 있으며 頌祝文學으로서 갖는 意義가 크다고 하겠다.

(다) 嘆息類

嘆息類의 歌辭는 人間의 運命이나 生活에서 오는 苦惱를 諦念의으로 노래한 것이다. 이러한 嘆息의인 要素는 특히 抒情文學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인데 국문학의 詩歌에서도 風流的인 要素와 함께 가장 主流的인 內容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嘆息類라고 이름한 것은 이러한 類型의 作品名에 이 嘆字가 빈번히 사용되었다는 점과 흔히 그 배후에 恨과 諦念을 情感을 두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用語가 哀傷 無常 所懷 등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 등에 이를 택한 것이며, 그 嘆息의 內容이 個人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용한 것이다.

人間은 本是 無限한 精神世界에 비하여 有限한 生活現實이 있고 自由奔放한 本然의 性情에 비하여 嚴格한 社會의 倫理規範이 있는지라 이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各己 多樣한 生活樣態 속에서 區區 細情 事緣이 많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抒情歌辭로서의 특징은 이 嘆息類에서 絶實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이다. 여기에는 人生의 虛無와 淸음을 嘆息한 것, 自身의 不遇하고 恨스러운 處地를 노래한 것, 恨 많은 一生을 回顧한 自傳的인 作品, 故鄉 親戚 父母와의 離別을 슬퍼하고 그리움의 情을 읊은 것, 女子로서의 拘束의이고 不自由스러운 身勢를 恨嘆한 것, 人間의 죽음을 吊哀한 것 등 다양하게 있으니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作品들이 있다.

感懷歌 故鄉遺別歌 歸來思鄉歌 歸寧歌 老處女歌 老嘆歌 斷腸人 單瓢懷曲 望鄉歌 思母歌 思弟歌 思親歌 思鄉歌 惜別歌 李氏回心曲 據懷論情歌 萬憤歌 萬言詞 白髮歌 婦人懷抱歌 所懷歌 述懷歌 心懷歌 女子有行歌 女子嘆息歌 玉屑話譚 離別回心曲 祭文 諸朝詞 兄弟遺別歌 등

이들 嘆息類의 歌辭는 특히 內房歌辭에서는 作者의 身邊所懷를 辭說調로 읊어 놓은 것들이 많은데 이것은 朝鮮朝의 女性들이 儒敎의인 倫理와 規範에 얽매어 呻吟하던 그들의 生活에서 自然的으로 吐露된 것들이 大部分이다. 그리고 人生無常이나 老嘆에 관한 것 외에 流配生活의 憤冤을 吐露한 것, 亡人의 祭日을 당하여 故人을 추모하며 슬퍼한 祭文類의 歌辭도 相當數가 있는데 모두 嘆息歌의 類型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다.

(다) 相思類

相思類의 歌辭는 男女間의 愛情 戀慕의 情을 노래한 것이다. 흔히 嘆息이 諦念과 恨의 屬性을 지니고 있는데 비하여 相思는 戀慕의 對象을 志向하는 意志가 들어있음을 볼 수 있다.

異性間의 愛情은 人間의 가장 本然的인 感情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文學一般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內容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를 특히 相思類라고 한 것은 많은 작품에서 두루 題名으로 쓰인 一般的인 用語이기 때문에 이를 類型上의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朝鮮時代의 儒敎思想은 異性間의 愛情倫理를 嚴格하게 規制하였고, 愛情의 率直한 表現을 억압하였으며, 또 이를 꺼리는 당시의 일반적 通念은 진정한 愛情文學의 발달을 沮害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하여 歌辭文學에서도 愛情의 문제는 거의가 妓女의 世界나 夫婦의 關係에 限定되었고 아니면 戀君의 情을 男女關係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 內質에 있어서도 다분히 遊戱의이거나 아니면 嘆息的 性向을 띠고 있었다. 이처럼 비록 破行的인 愛情文學이긴 하지만 대체로 戀君의 情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나, 특히 妓房이나 風流郎의 世界에서 男女間의 相思戀慕의 情을 노래한 것, 또는 內房의 婦女로서 空閨의 恨과 함께 男便을 戀慕하는 一片丹心을 吐露한 것들이 있으니 다음에 그 作品을 例擧해 보겠다.

牽牛織女歌 古相思曲 寡婦歌 觀燈歌 閨秀相思曲 閨怨歌 金縷詞 隴西別曲 斷腸詞 答相思曲 望夫歌 梅花歌 鳳凰曲 芙蓉相思曲 思美人曲 相思歌 相思曲 相思別曲 相思陳情夢歌 相思回答歌 送女僧歌 良辰和答歌 月令相思歌 再送女僧歌 秋風感別曲 恨別曲 黃鷄詞 등

이러한 相思類의 歌辭는 다른 類型의 作品에 비하여 量的으로 그리 많지는 못하다. 그것은 대략 위에서 지적한 바 당시 社會的 倫理規範의 制約으로 愛情의 自由로운 表現이 억압되고 구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平民의이고 民謠的인 歌辭나 歷史的으로 朝鮮後期 이후의 작품들에서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作者 未詳의 작품이 대부분이다.

以上에서 抒情歌辭를 風流類 頌祝類 嘆息類 相思類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 보았는데 抒情歌辭는 역시 다양한 素材를 取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主觀的이고 個性的인 情感이 主가 되어 있는 것이다. 文學史的으로 볼 때에는 士大夫들의 江湖 風流的인 작품들이 抒情歌辭의 主流를 이루면서 朝鮮朝 一代에 걸쳐 꾸준히 創作 發展되어 왔다. 그리고 특히 風流類에서 花煎歌, 嘆息類에서 嘆息歌, 頌祝類에서 獻壽歌 相思類에서 相思歌와 같은 系列의 內房歌辭 作品들에 있어서는 대부분 作者 未詳으로 同種의 異本이 많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抒情歌辭는 그 文學性에 있어 個性的이고 秀逸한 작품들이 많고 또 歌辭가 지니고 있는 詩歌로서의 性格을 보다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겠다.

3. 叙事歌辭

叙事歌辭는 叙事的인 歌辭라는 意味이다. 內容上 비교적 叙事的 性格이 강한 類型의 歌辭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의 叙事는 또한 叙事장르의 用語와 概念을 빌어 온 것이나 특히 客觀的인 事物에 重點을 記述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分類上의 用語로 사용한 것이다. 이 叙事歌辭는 다시 史話類 紀行類 등의 類型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가) 史話類

史話類의 歌辭는 歷史的 事件이나 人物 또는 說話 등을 叙事的으로 記述한 것이다. 歷史的 事實이나 이야기를 내용으로 한 작품은 특히 小說文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이나 時調와 같은 短形의 詩歌에서도 이를 素材로 하여 읊은 것이 많은데 歌辭에서도 이와 같은 叙事性이 강

한 一群의 작품들이 있으니 이를 史話類의 類型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史話類의 歌辭는 그 내용에 있어 歷史的 事實을 龜鑑으로 삼는 教訓性이나 단순히 歷史的 知識의 傳達이라는 敎述的인 性格이 또한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宗教的이고 思想的인 敎訓의 目的이 直接的으로 나타나 있는 敎述歌辭와 區別되어야 하며 그보다는 內容上의 이야기 자체에 중점이 있으며 그 이야기는 또한 個人的이고 主觀的인 것이 아니라 客觀的이고 公的인 性格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叙事歌辭의 하나로 分類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주로 중국이나 우리 나라의 역사적 사실을 記述한 것이나, 이른바 戰爭歌辭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 또는 한 家門의 歷史라고 할 世系나 先祖의 遺德을 기리는 內容의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作品의 例를 들 수 있다.

南征歌 大韓五千年歌辭 萬古歌 夢遊歌 半萬年史歌集 베를가 先祖歌 世德歌 楊貴妃歌 歷代歌 歷代轉理歌 玉樓宴歌 龍蛇吟 虞美人歌 本朝五百年史話 朝鮮建國歌 定州勝戰曲 天君復位歌 楚漢歌 太平詞 漢陽五百年歌 海東萬古歌 등

이와 같은 史話類의 歌辭는 量的으로 그리 많지는 못하며 대개는 朝鮮 後期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 중 歷代歌 漢陽五百年歌와 같은 歷史一般에 관한 작품들은 많은 異本을 낳으면서 널리 傳播되어 읽혀지던 것이며, 世德歌와 같은 類의 것은 各家門에 따라 그 內容이 다르므로 앞으로 더욱 많은 자료의 발굴이 可能할 것이다.

(나) 紀行類

紀行類의 歌辭는 주로 旅行의 過程에서 얻은 感想과 體驗 見聞한 바를 그 路程에 따라 비교적 객觀적으로 記述해 놓은 것이다. 이른바 紀行歌辭의 작품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할 것이다.

紀行類의 歌辭는 作者의 旅行過程의 이야기가 그 路程에 따라 順次的으로 展開되고 見聞의 對象 자체에 중점을 두어 客觀的으로 記述하고 있다는 점에서 抒情歌辭의 風流類와 구별되어야 한다. 風流類의 歌辭는 어디까지나 主觀的인 感興을 爲主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風流類에 흔히 등장하는 素材로서의 自然은 대개 일정한 장소에 局限되는 반면 紀行類에서는 보다 광범한 지역에 걸쳐 遠距離의 旅行過程이 根幹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 紀行類를 叙事歌辭라고 하기에는 그 展開되는 內容이 너무 平面的이고 記錄的인 性格을 가지고 있음은 사실이나 이러한 점은 비단 歌辭文學뿐만 아니라 國文學 전반에 두루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紀行類의 작품을 叙事歌辭의 한 類型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다지 큰 無理가 없을 줄로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주로 中國 日本 등 外國에 使臣으로 다녀온 過程의 이야기라든지, 名勝地를 遊覽 旅行한 것, 또는 流配歌辭 중 流配生活의 路程을 중심으로 하여 된 것, 기타 특별한 事由로 하여 遠距離 旅行을 하고 그 過程에서의 見聞 所感을 적은 것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作品들을 들 수 있다.

伽倻山海印寺遊覽歌 京城遊覽歌 慶州觀覽記 關西別曲 金剛別曲 金剛山遊山錄 金塘別曲 兩行路程記 大日本遊覽歌 名山巡禮歌 浮石寺遊覽歌 扶餘路程記 北關曲 北遷歌 西征別曲 西行錄 燕行歌 遊覽歌 日東壯遊歌 濟州島路程記 出關詞 出塞曲 漂遊歌 漂海歌 海印寺遊覽記 回鄉歌 등

이러한 紀行類의 歌辭는 그 內容에 있어 散文的인 性格이 강하며 길이에 있어서도 長篇의 巨作인 것이 많고 時期的으로 볼 때 朝鮮 後期 以後에 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從來의 諸 分類를 보면 대개 紀行歌辭를 독립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를 敘事歌辭의 한 類型으로 設定하고자 하는 것이다.

以上에서 敘事歌辭를 史話類와 紀行類로 분류하여 살펴 보았는데, 敘事歌辭는 대체로 歷史的 事實이나 旅行에서의 見聞을 內容으로 한 것이 대부분인데 長篇의 散文的인 作品들이 많으며 文學史的으로는 비교적 朝鮮 後期에 발달하였던 것이다.

敘事歌辭는 作品의 數量에 있어서 教述歌辭나 抒情歌辭에 비하여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短篇의 作品이 長長 數千行에 이르는 雄篇巨作이 많다. 이들은 教述歌辭, 抒情歌辭와 並稱하는 敘事歌辭로 分類함은 당연한 일이며 이 敘事歌辭에서 歌辭가 갖는 文筆的 또는 散文的 性格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詩歌文學에서 敘事歌辭가 차지하는 敘事詩歌로서의 意義는 자못 큰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V. 結 論

지금까지 보다 綜合的이고 合理的인 歌辭의 分類를 위하여 從來 諸家의 分類를 概觀 檢討하고 分類上의 諸 問題點들을 再考한다음 새로운 分類를 試圖하여 보았는데 以上 論及한 바를 要約하여 結論으로 삼겠다.

歌辭는 時調 小說과 함께 國文學의 三大장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기초적인 資料의 整理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며 歌辭文學의 本格的인 研究를 위해서는 우선 資料의 綜合的 整理와 함께 이를 體系的으로 分類하는 作業이 무엇보다도 先決되어야 할 課題로 남아 있는 實情이다. 이에 從來의 諸 分類를 檢討한 바 거의가 各樣各色的 便宜的이고 臨時的인 分類를 하고 있어 歌辭는 全面的으로 再分類되어야 함을 指摘하였다. 그리하여 약 2500篇의 資料를 檢討하여 본 結果로서 歌辭의 概念과 範疇를 再整理하고 教述장르의 理論을 援用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分類를 提示하였다.

즉 詩歌文學으로서의 歌辭는 우선 教述歌辭, 抒情歌辭, 敘事歌辭로 三大別하여 볼 수가 있는 것이다.

教述歌辭는 특히 宗教 思想 등의 布教나 教訓的인 目的을 위하여 敘述한 것으로 歌辭文學의 主宗을 이루고 있다. 教述歌辭는 이를 다시 佛敎類, 儒敎類, 天主教類, 東學類, 開化啓蒙類 등의 諸 類型으로 나누어 考察하였다.

抒情歌辭는 특히 主觀的 情感을 爲主로 노래한 것인데 여기에서 歌辭가 갖는 詩歌로서의

性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抒情歌辭는 이를 다시 風流類, 頌祝類, 嘆息類, 相思類의 諸 類型으로 나누어 考察하였다.

叙事歌辭는 客觀的인 事物을 爲主로 하여 記述한 것인데 여기에서 歌辭의 文筆의 性格이 가장 躍如하게 드러나고 있다. 叙事歌辭는 이를 다시 史話類, 紀行類로 나누어 考察하였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歌辭를 크게 三大別하고 다시 이를 11個의 小類型으로 나누어 살펴 본 셈인데 이와 같이 함으로써 歌辭의 分類는 보다 合理的 體系의 體系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하는 바이다.

參 考 文 獻

- 安白山, 朝鮮文學史 韓一書店 1922.
 趙潤濟, 韓國詩歌의 研究 乙酉文化社 1948.
 具滋均外, 國文學概論 一成堂書店 1948.
 李能雨, 入門을 위한 國文學概論 국어국문학회 1954
 W.H. 하트슨, 文學原論(金容浩 譯) 大文社 1958.
 ——, 가사文學論 一志社 서울 1977.
 張德順, 國文學通論 新丘文化社 1960.
 金東旭, 國文學概論, 民衆書館 1962.
 李秉岐, 國文學概論, 一志社, 1965.
 高大民族文化研究所, 韓國文化史大系 V(言語·文學史下) 1967.
 張德順外, 國碑文學概說 一潮閣 1971.
 金俊榮, 韓國古典文學史 螢雪出版社 1971.
 정병옥,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77.
 崔珍源, 國文學과 自然, 成大出版部 1977.
 李東英, 歌辭文學論攷 螢雪出版社 1977.
 ✓ 徐元燮, 歌辭文學研究 融雪出版社 1978.
 趙東一, 叙事民謠研究(增補版) 啓明大出版部 1979.
 ——, 韓國小說의 理論 知識産業社 1979.
 ✓ 국어국문학회, 歌辭文學研究 正音社 1979.
 陶南趙潤濟博士回甲紀念論文集 新雅社 1964.
 陶南趙潤濟博士古稀紀念論叢 螢雪出版社 1976.
 又村姜猷樹博士回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韓國語文論叢 螢雪出版社 1976.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 27호(1964), 58·60호(1972), 62·63호(1973), 72·73호(1976).
 韓國語文學會, 語文學 21집 1969.
 韓國言語文學會, 韓國言語文學 8·9輯 1970.
 申泰和, 歌詞集(朝鮮文學全集 第2卷) 三文社 1948.
 李昌培, 韓國歌唱大系 弘人文化社 1976.
 金聖培外, 註解歌辭文學全集 精研社 1961.
 李相寶, 李朝歌辭精選 精研社 1965.
 ——, 韓國歌辭選集 集文堂 1979.

- , 한국불교가사전집 집문당 1980.
現代詩學社, 現代詩學(88호) 1976. 7.
曹南鉉, 開化歌辭 螢雪出版社 1978.
林基中, 朝鮮朝의 歌辭 成文閣 1979.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閩房歌辭 東學歌辭 I 東學歌辭 II 1979.
外 歌辭資料 多數.